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 26:47-56)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Matt. 26:47-56)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온갖 심문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shows the content of which Jesus is arrested. After Jesus was arrested by Roman soldiers, all night, Jesus was dragged here and there, and underwent all kinds of questions and insults.

1. 배신의 키스로 자신의 랍비를 팔아버린 가롯 유다

최후의 만찬 자리를 일찍 떠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 갔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여! 라고 하며 배신의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래도 유다를 향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50절)고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요 14:1). 예수님은 유다가 후회라도 회개를 하기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1. Iscariot Judah who sold his own Rabbi by a betraying kiss

Judah who left the last supper early called on a high priest in order to hand over Jesus Christ, and the high priest was granted permission from Pilate and instructed the Roman soldier to arrest Jesus. Judah who came back again greeted Rabbi and gave him a kiss of betrayal. It was the sign to notify who Jesus Christ was to Roman soldiers. Even though Jesus knew the situation, He said to him, "Do what you came for" (50). This is Jesus who has loved his own disciples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John 13.1). Perhaps, Jesus wanted Judah to repent his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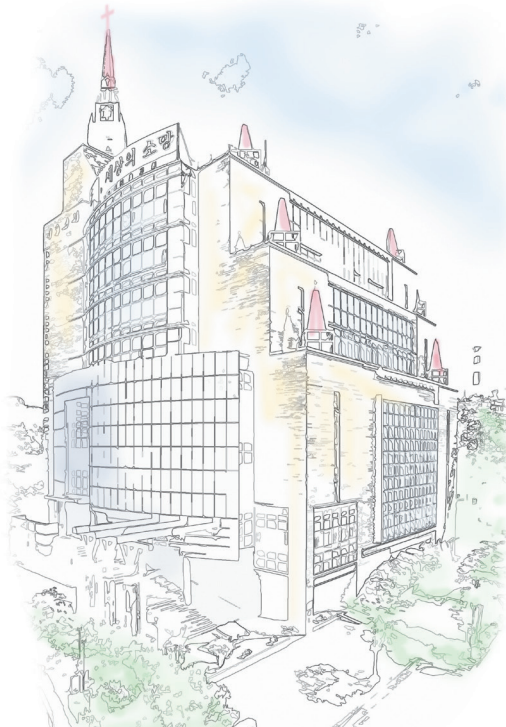
2. 분노의 칼을 들어 화풀이 한 베드로

예수님은 배신자 가롯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므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낮게 하셨습니다(눅 22:51).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52절).

비록 의로운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똑같이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칼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력의 칼이든 마음의 칼이든 칼을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는 결국 그 칼로 자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 Peter who vented his displeasure by holding a sword of anger

Though Jesus called betrayer Judah as a friend and gave the full extent of his love, Peter did not endure the situation, and burst into a rage. At last, he drew his sword out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ear. Peter's fire-like nature wasn't seen by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because they were brutally trying to arrest Jesus who was not guilty. At that time, Jesus told him to be patient for this situation and touched the man's ear and healed him (Luke 22:51)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them, "For all who draw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v. 52)

It is Jesus word that even though you are in righteous situation, anyone who swings a sword for any reason will be perished by the sword. Here, the sword means that it has the power to harm another people.

We do not know how often we swing the sword. We sometimes swing the sword for our own purpose and are overconfident with the name of justice. However, Jesus gives us warning not to do it that way. It is the warning that anyone who accomplishes his own purpose with a sword, whether it is the sword of power or the sword of mind, will be corrupt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무폭력 항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전혀 안낼 수는 없겠지만 그 분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신한 가롯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 부르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본받아 기도와 평화와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Jesus resisted them without violence.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Eph 4:26-27). Though we are never be able to be angry, if we do not put the anger right away. Satan finds time and makes us sin and fall in a big difficulty.

By following Jesus who called betrayer Judah as his friend to the end, and gave him another chanc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ive a beautiful and victorious life with prayer, peace, forgiveness, and lo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분단 70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

8월 15일(토) 인천순복음교회 / 이종윤 원로목사 기도회 담당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국내외 교회들과 함께 통곡기도회를 이어온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사무총장:손인식 목사, 이하 북교연)이 오는 8월 15일 '분단 70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다.

통곡기도대회는 미국 이민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04년에 시작됐으며, 미국에서만 22개 도시가 동참해 기도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0월 통곡기도회가 시작되어 국내 9개 도시에서 주요 역 광장 등에서 기도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북교연은 지난 3월부터 8월 15일까지 6개월간 국내 100개 교회, 해외 100개 한인교회들을 선정해 동서독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앞장섰던 니콜라이교회와 같은 모델 교회를 세우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8.15 기도회는 그동안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북교연은 "8.15 통곡기도회는 분단 70년의 때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도록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도회에는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원로),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등 교계인사를 비롯해 탈북민, 정치인 등이 참여해 주요 순서를 맡게 된다.

실무준비위원회는 전체 진행될 시간 중 80%를 통곡기도와 메시지, 간증에 할애하며 기도에 힘을 더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도운동은 '전국 주요 도시 교회에서 북한 동포를 위한 통곡기도회를 펼친다', '전국 역광장에서 통일 한국을 위한 통일광장기도회를 펼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 '10만 통일 선교사를 세운다'를 주요 기도제목으로 삼고 있다.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 사랑나눔운동 본격 개시!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 : 홍성주장로)의 일환으로 8월 한달간 진행되는 사랑나눔운동이 지난 주일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2층 본당 앞에서 기증과 기부(약정)로 시작되었다.

이 날 명품 찻잔세트, 고급 도자기, 신사복, 식품 등 다양한 기증품이 접수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기부

천사 모금에도 참여하였다. 사랑나눔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포된 자료(약정서 포함)를 참고하기 바란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랑나눔 기부 약정자 명단

교역자 : 박노철 서명철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양세라 배경애 임규현 천세종 심진희
구분혜 장재원 정대는 이진광 교수는
장로 : 오정수 노문환 김영준 이영기 서문석 박두호
홍성주 이관규 박정선 하인선 오광환 양준경 최광성

이계홍 최양진 이강진 오치열 이동만 송인권 안인호
최형열 김금준 최차순
집사 : 예완식 이종창 이길재 김영희 차도훈 홍일성
김광래 주동재 천준민 무명다수



사랑나눔 기부를 약정하는 장로(상), 교역자(하)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9)

(문 179) 복음이 없는 사람은 버린 백성인가요?

(답) 사도 바울은 롬2:12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2:14-15)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롬3:19)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이방인(복음화 되지 못한 백성들)은 도덕법을 갖고 있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가르친 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2)이방인은 그들 나름대로 양심의 태두리 내에서 자기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이 자기들을 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롬2:15). 그것은 성경의 표준과는 다르나 자기들의 표준을 갖고 있고 그들을 판단하고 자기들 양심의 공격에 방어를 하며 죄의식을 갖기도 하고 벌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롬3:19). 그러나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한다는 것입니다.(롬3:20:21)

복음이 없는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제2의 길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성경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 복음이 만일 어느 부족(그룹)에 전해졌다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즉시 전해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거나 오순절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체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은 전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공평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무로 주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롬5: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엡2:8)라고 했고 롬 10:13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찌 전할 수 있었습니까(롬10:14-15).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2)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교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요14:6)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없는 이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하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선교사의 전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에 빠진 이는 없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온 것이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신6:5)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희망이 없는 잃어버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5 인도비전트립 중간보고

인도 벵갈로에서



최소의 권사 (비전트립지원팀장)

“인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어로 삼고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로 지역으로 비전트립을 위해서 8월 1일 오전 9:30분 교회에서 당회장 박노철 목사님과 장로님들 및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가슴에 간직하고 인천공항을 선교팀원들이 출발하여 9시간 15분의 비행 끝에 남인도 벵갈로에 있는 공항에 도착한 것은 8월 2일 이른 새벽이었으며 선교사님 부부의 영접으로 나가나할리에 있는 아가페센터로 이동하였고 마침 주일날이어서 아침(11:00)에는 서준권 목사님의 말씀인도로 어른 45명, 어린이 80명 선교팀 30명이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수에 젖은 듯한 검은 눈동자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드리며 설교에 집중하는지 어느새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면서 동참하고 있었고 나는 분명히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불모지가 얼마 안가서 기독교 문화의 꽃이 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보잘 것 없는 가난하고 신분상으로는 하층민이지만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상숭배와 수 많은 신들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암흑으로 가득찬 인도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믿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두고온 가정과 일터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가나할리의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님 부부의 거룩한 헌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영적 리더이신 서준권 목사님의 수고와 파송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단장 박종권 집사님의 헌신을 주께서 먼저 아실 것입니다.

진료팀 역시 하루에 1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분야별로 치료하시며 저들의 육신 뿐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며, 어린이 사역팀 역

시 70~80명의 어린이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지원팀 역시 30℃가 넘는 날씨에 2평 남짓한 공간에서 가스불과 씨름하며 비록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의 Q.T, 늦은 밤의 그날의 모든 평가를 통해서 양질의 선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밝은 나가나할리교회, 단내교회, 니모처나교회, 치그라프라의 선교센터가 인도 기독교성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인천공항에서 모든 수속을 위해 수고해준 여행사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단기 선교 활동은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땅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땀기열과 말라리아와 장염, 풍토병 등에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자유하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다시 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진 : 임중현 성도

진중세례식을 마치고

부모의 심정으로



손태현 집사 (비전 2020운동)

지난 8월1일(토) 전방 육군3사단에 서 비전 2020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진중세례식을 마쳤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그간 계획 되었던 2015년도 전반기 진중세례는 부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하였으므로 이번 진중세례는 새로운 본부체제로 치러진 첫 번째 행사였기에 모든 부원들은 더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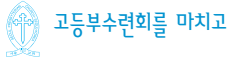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에도 군인교회를 가득 메운 장병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고 서울교회 청년부 자매들의 워십공연과 함께 진행된 세례식에서 조원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선포는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앞둔 장병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며 세례자 121명과 기도자 35명을 포함한 150여명의 장병들은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었습니다.

비전 2020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화 된 통일 조국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0만명 이상의 장병이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여 2020년도까지 전국민의 75%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이 땅

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 2020운동 본부는 교회가 지원하는 여섯 본의 군부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례 받은 장병들이 자대 배치후에도 신앙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20일 20사단과 11월 23사단 그리고 10월에 22사단의 진중세례식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찬식 준비에 애써주신 권사님들, 동참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질 이 위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

전준수(고등부 학생회장)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수련회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수련회 첫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비가 와야 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은 매우 맑았습니다. 우리들은 시원한 강물 속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물싸움을 하며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QT제조를 배웠는데,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궁금한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으로 나

누어서 더 효과적으로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찬양팀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천세종 목사님, 둘째 날에는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크댄스, 캔들파이어 등을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캔들파이어는 고등부 수련회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한 층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

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시간 마다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음식을 먹었고, 주님의 축복 아래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학업 문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 스트레스를 감수할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며 다니엘 처럼 뜻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또 몰려 오겠지만 겁내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즐거운 수련회를 보내고 온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목)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15일(토) 분단70년 한민족통국 기도대회를 열고 설교한다.

■ 교역자 휴가: 서명철 목사(8.10-15) 대행 서준권 목사 장석남 목사(8.10-15) 대행 박영준 목사 양세라 목사(8.11-14) 대행 배경애 전도사

■ 득남: 5교구 오태연 성도 진보라 성도 (오치열 정로 하숙 권사 장남 가정)

■ 주일식당봉사: 리브가 전도회(8. 9) 한나 전도회(8. 16)

■ 금주의 식사 제공: 류총기 집사 김복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장로 수련회

8월 28일 아가페타운

장로수련회를 끝으로 우리교회 2015년 여름 수련회가 막을 내린다. 장로수련회는 아가페타운에서 오는 8월 28일(금)에 열린다.

폐휴대폰모으기운동

우리교회는 대치1동사무소와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운동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열린프로그램 이미용반 2기 모집



이미용봉사자를 위한 이미용반 2기를 모집한다. 9월 7일 개강하여 10주간 진행되는 이미용반은 선착순 20명만 받으며 별도의 수강료가 있다.

문의 : 이명심 집사
010-7171-4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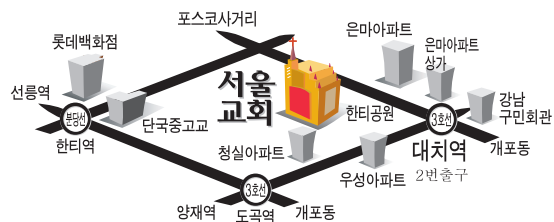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될 수 있도록
2. 인도비전트립을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